

인터뷰

‘물의 올림픽’ 세계물포럼 개최 - “물산업 이슈의 주도권 확보 기회로”

- 내년 4월 대구·경북에서 일주일 간 진행 예정, 물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 기대 -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로서 ‘물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개최가 1년 안으로 다가왔다. 대구와 경북에서 내년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 간 개최되는 세계물포럼은 170여 국가에서 3만 5,000명이 참여하여 약 2,600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함께 2,5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무 위원장은 “국제 규모의 행사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이를 모르거나 관심이 많지 않다”며, “내년 세계물포럼을 통해 물이 더 이상 풍부하지 않고 값싸지 않다는 점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된 물 관리 경험과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국내 물산업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무 위원장은 13대, 15대 국회의원과 4대 건설교통부 장관을 거쳐 2005년부터 5대 한라대학교 총장, 2012년부터 한국물포럼 총재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지난달 말 내년 세계물포럼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정무 위원장을 만나 국내 물산업 현황과 행사 개최 의미, 그리고 파급 효과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이정무 2015 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위원장

오랜 준비 끝에 내년에 세계물포럼이 국내에서 개최됩니다. 먼저, 행사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준비에 임하시는 각오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계물포럼은 세계물위원회(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약 3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물 분야 최대 기구)가 3년마다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물 관련 국제 행사로서 '물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행사를 처음 국내에서 개최하는 만큼 큰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대구·경북에서 개최되는 '제7차 세계물포럼'은 국내 물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앞선 우리의 물 관리 기술을 세계에 소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물 쓰듯 한다'는 말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물이 차고 넘친다는 인식이 많은데, 이 행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널리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계인이 물로써 하나가 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본 행사 프로그램 외에 물 엑스포와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제7차 세계물포럼 당사자 준비총회'를 개최해 준비 상황 점검과 세부 주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는 지난 2월 27일부터 28일 까지 이틀 동안 경주에서 '제7차 세계물포럼 당사자 준비총회'를 역대 최대 규모(59개국 총 725명 참석)로 개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당사자 준비총회를 통하여, 2015 세계물포럼의 공식 로고와 슬로건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7차 세계물포럼에서 논의될 기후 변화와 재해, 위생, 물과 인권, 물과 도시, 통합 수자원 관리, 물과 식량, 녹색 성장, 거버넌스, 물 문화 등 16개(theme) 대주제별 세부 주제가 도출되고 본행사의

300여 개의 세션을 주관하게 될 워킹그룹의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기관, 학계, 시민사회, NGO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세계물포럼 전 과정에 걸쳐 내년의 본행사에서 논의될 내용을 사전 점검하고 기획 방향 및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당사자 준비총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본행사 프로그램 준비와 함께, 수송·숙박·참가자 등록 관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참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는 우리나라가 물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5 세계물포럼'은 UN이 2015년부터 향후 15년간 인류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의 새로운 목표(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s)를 설정하는 데 있어 그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2015년은 UN이 지난 2000년 설정한 새천년 개발 목표(MDGs)가 마무리되는 해로, 전 세계가 새롭게 목표를 설정하는 시점인 만큼 세계물포럼을 통해 '물' 관련 주요 안전들이 논의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가 당면한 물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이 강화될 것이며, 아울러 기후 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한 물 문제의 심각성과 물 산업의 중요성 등 물 관련 이슈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국내에서의 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5 세계물포럼에는 각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 국제기구, 기업, 학계, NGO, 언론인, 시민 등 170여 개 나라에서 약 3만 5,000명(연인원)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은 주요 과정으로 주제별 과정(Thematic Process), 정치적 과정(Political Process), 지역별 과정(Regional Process)과 함께 이번에 신설된 과학기술과정(Science & Te

인터뷰

chnology Process)이 있으며, 이 외에 시민포럼(Citizen Forum) 및 엑스포 등 각종 부대 행사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계물포럼 개최는 대한민국이 물 관련 이슈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신설되는 '과학기술 과정' 등을 통해 국내 물 관리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내 물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약 2,600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2,5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됩니다.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서는 무엇보다 그간의 '공론', 즉 논의보다는 '실행'에 핵심 가치를 둘 계획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7차 세계물포럼의 차별화된 핵심 메시지는 '실행'입니다. 역대 포럼이 다양한 해결책들을 수집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7차 물포럼은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7차 포럼에서는 과학기술 과정이 신설되었는데, '실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인 과학 기술이 국가간에 활발히 교류되고, 관련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과학기술 과정은 물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국가들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물 관련 경험과 기술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파하는 주요한 창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물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계 물시장은 2010년 기준으로 반도체, 조선 시장의 2배 이상인 약 5,0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4% 이상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산업

역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6조원에서 2011년에는 16조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8위 정도의 규모입니다. 반면, 해외 진출 규모는 세계 물시장의 0.3%에 불과해 향후 창조경제 성장 동력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분야로 평가됩니다. 현재까지는 서유럽, 북미 등 선진국 중심으로 세계 물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아시아 지역 물시장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향후 아시아 물시장이 부상할 것으로 보이며, 건설부터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토탈 솔루션 분야도 시장의 수요에 따라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해수 담수화 등 선도 기술을 보유해 이미 해외에 진출해 있는 분야 외에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통합 솔루션 분야에 대한 역량의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기술과 인력을 개발한다면 우리나라 물산업은 반도체와 조선 못지않은 산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이 한국의 물산업계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실행을 핵심 가치로 한 2015 세계물포럼에서 적정 기술 개발과 보급, 공유를 위한 기업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 세계물포럼 조직위원회는 이번 포럼에 다양한 기업인들의 참여와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국내 기업들은 각국의 정치 지도자, 지자체, 글로벌 물기업 등이 참석하는 흔치 않은 기회인 세계물포럼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상담은 물론,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가의 고위급 인사 초청 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계물포럼 개최는 대한민국이 물산업 이슈와 기술 표준과 관련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이며, 국내 물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CERIK

글 : 이형우 편집장